



기획시리즈

최명섭 / 임업연구원

노각나무

과명 : 차나무과

학명 : *Stewartia koreana*

영명 : Korean Stewar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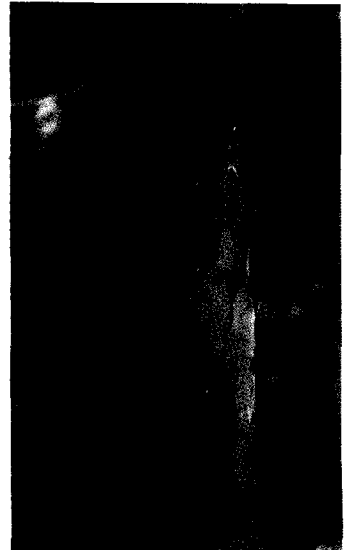
한명 : 錦繡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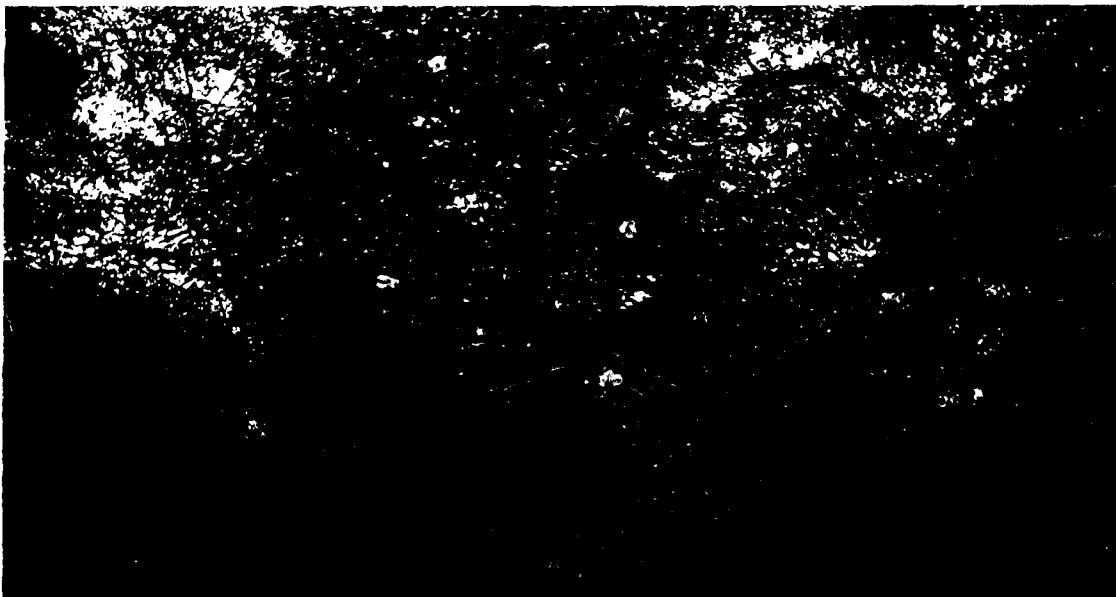
일명 : こうらいしゅらのき



◀ 노각나무 꽃

▼ 노각나무 수피





▲노각나무 전경

동백나무 는 사철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울에 붉은색 꽃을 피는 반면 노각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낙엽성수목으로 여름철에 백색꽃이 아름답게 피어 우아함을 준다.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심을 수 있어서 좋은 나무이다.

특히 이 나무가 좋은것은 나무줄기가 얼룩지게 벗겨져서 마치 모과나무나 백송과 같은 모양의 수피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노각나무는 전라남도에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준 것이고 경상도에서는 노가지나무라 부르고 북한의 평안남도에서는 비단나무, 금수목(錦繡木)이라 부른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외

국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계에 8종이 알려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것이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어서 노각나무하면 우리나라 특산인 노각나무만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형편이다.

1.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기호에 의해서 커다란 거목은 거의 베어져 버렸으며 지금은 얼마 안되는 큰나무만이 자라고 있을 뿐이다.

주분포지는 경북·충북이남이나, 평안남도 양덕에도 자라고 있으며 표고 200m이상에 자생하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7~15m에 달한다. 겨울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생육이 가능하나 높은 비옥도와 습기를 좋아 한다. 내음성이 강하여 큰나무밀이나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해변가에서의 생장도 좋고 대기오염에도 잘 견디는 수종이다.

2. 형태적 특징

수피는 모과나무나 배롱나무와 같이 껍질이 벗겨져서 홍황색 얼룩무늬가 있어서 비단나무라 불리우기도 한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며 길이 4~10cm, 넓이 2~5cm로 가장자리에 파상의 톱니가 있으며 진녹색 잎은 가을이면 황색으로 단풍이 들어 아름답다.

꽃은 양성으로 직경 7.5cm, 길이 2.5~3.5cm로 새가지의 어깨에 피며 동백꽃모양과 비슷하고 백색으로 6~7월에 개화하며 10월에

5각형 삭과(朔果)를 맺기도 한다.

줄기는 노란색의 것이 있고 주황색 계통의 것이 있으며 매년 벗겨져서 얼룩무늬를 갖는다. 수피는 반들반들하여 다른 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노각나무의 백색꽃이 필 때면 그 고귀하고 우아한 멋이야말로 봄에 피는 목련이나 벚나무가 따를 수 있을까? 겨울철, 잎이 떨어지고 난 앙상한 나무 가지의 처절한 모습보다는 하나의 예술품과 같은 색채 다양한 이 나무의 줄기를 감상하는 것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주황색의 수피 위에 내려진 포근한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고 느끼지 않고는 감히 표현할 수 없으리라.

노각나무는 뿌리가 선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 힘들므로 나무 숲사이나 음지, 또는 녹색을 배경으로 하는곳에 심어두어야 꽃이 피고난 다음 조화가 잘될 것이다.

배수가 잘되는 음지쪽 바위정원이나 향나무와 같은 숲을 찾아서 심으면 좋다.

공원에 심을 때에는 북향이나 나무로 가려진 곳을 택하여 심도록 하여야 한다.

노각나무는 도로변이나 개방된 지역에서는 살기가 힘들므로 이러한 곳에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

다.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 건조한 곳에 심으면 잎의 가장자리가 붉게 타며 생육이 부진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 번식법

가. 종자로 번식하는 법

9월 말경 열매가 녹색에서 밤색으로 익어갈 때 따도록 하여야 하며 너무 늦게 되면 열매가 벌어져서 한톨의 종자도 얻지 못하므로 열매 따는 시기를 잘 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자의 크기는 0.7cm정도이며 눌러 보아 탄력이 있는 종자이면 충실한 종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열매에서 종자를 얻을 때는 음지에서 2~3일 건조시킨 후 털어서 얻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열매가 벌어지지 않으므로 집게 같은 것으로 힘을 가하여 종자를 얻는다. 햇볕에 말려서 얻은 종자는 당년에 싹이 나지 않으며 2년 후에나 트게 되는데 발아율이 대단히 불량하다.

음지에서 말려서 얻은 종자를 마르기 전에 곧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파종하면 발아가 잘된다. 파종할 곳은 토양수분이 충분하며 음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종자의 2~3배가 덮히도록 복토하고 짚이나 이끼를 덮어주어 발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상 관리는 항시 습기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는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묘목이 어려서 거세

미와 같은 충해와 입고병과 같은 병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나. 삽목으로 번식하는 법

봄철에 삽목할 때는 전년도에 자란 새가지의 길이 20cm정도가 좋으며 보통 삽목상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발근이 잘 된다. 발근율은 보통 30%정도 되며 홀몬제인 I.B.A나 N.A.A를 사용하면 더 높일 수도 있다.

봄에 삽목한 묘는 가을에 20cm 정도까지 성장한다.

봄철에 삽목할 시기를 놓쳤거나 부득이 여름철에 할 때에는 7월중 새순이 어느정도 굳었을 때 20cm 정도로 삽수를 조절하여 2~3개의 잎을 붙여서 발근 촉진제를 처리하여 삽목하면 보통 50%의 발근율을 보인다.

5. 그밖의 용도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이 나무를 잘라간 이유는 집안의 내부 장식구로서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동나무보다 2~3배가 무거우나 가공성이 좋아서 여러가지 목기와 완구를 만드는데 좋은 자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고 훌륭한 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정원의 관상용으로 대량 심어야 하며 산업용 자원으로도 많이 심어야 될 수 종이다. 대량증식과 포트재배가 되면 외화 획득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